

# 共産主義体制 比較研究의 接近法 序說

- 北韓 共産体制에의 適用 可能性과 關聯하여 -

高 性 俊 \*

目	次
I. 공산주의 체제연구에 있어 비교 연구의 필요성	7. 공산주의 체제론적 접근법
II. 공산주의 체제 비교연구의 접근법	III. 북한 체제에의 적용 가능성
1. 역사적·문화적 접근법	1. 역사적·문화적 접근법
2. 전체주의적 접근법	2. 전체주의적 접근법
3. 정치문화적 접근법	3. 정치문화적 접근법
4. 복잡한 조직 접근법	4. 복잡한 조직 접근법
5. 근대화 혹은 발전론적 접근법	5. 근대화 혹은 발전론적 접근법
6. 집단갈등론적 접근법	6. 집단갈등론적 접근법
	7. 공산주의 체제론적 접근법
	IV. 맺는 말

## I. 공산주의 체제연구에 있어 비교연구의 필요성

정치체제에 대한 비교연구란 정치체제들 사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관찰하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을 추구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이론을 통하여 그와같은 유사점, 상이점 혹은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정치체제의 본질을 파헤치는 작업인 것이다.<sup>1)</sup>

지난 20~30년 전에는 공산주의 체제를 확인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당시 공산주의 체제들은 적어도 원칙상에 있어 소비에트 모델을 그 원형으로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권력이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공산당에

\* 국민윤리교육과·조교수

1) Richard L. Merritt, Systematic Approaches to the Comparative Politics, (Chicago : Rand McNally, 1970) P. 3.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부와 경제 그리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 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으며,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공산국가들 사이의 군사동맹이나 COMECON에 회원국이기도 했다. 물론 1940~50년에 걸쳐보면 공산체제들 사이에도 많은 상이점들이 있었다. 여러나라에서 자신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라고 기술했고, 지배적인 공산당 이외에 비경쟁적인 정당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중공, 동독, 폴란드 등지에서는 농업에 있어 private sector를 일부 허용하고 있었고,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걷고 있었고, 국제관계에 있어 비동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1950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공산체제들은 소련을 중심으로 결속된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고 다소의 변형이 있다하더라도 모든 공산체제들은 소비에트 내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모델에 입각해 있었다. 그러나 60년, 70년대를 거치고 1980년 대인 현시점에서 보건대 그동안 공산체제의 경우 많은 변화를 가져와 종래와 같은 접근법을 가지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

첫째로, 일부 공산국가들은 더 이상 진영외교를 국제관계에 있어 우선시 하고 있지 않다. (예 : 중공과 소련, 루마니아, 중공과 베트남)

둘째는, 그동안 공산국가의 수가 확산됐으며, 다양해 졌다.<sup>2)</sup>

\*\* 1983년 현재 23개국

가. 아프리카 및 중동 (6개국)

Angola, Benin, Congo, Ethiopia, Mozambique, Yemen-Aden

나. 미주 (1개국)

Cuba

다. 아시아 및 태평양 (7개국)

Afghanistan, China, Kampuchea, North Korea, Laos, Mongolia, Vietnam

라. 동구유럽 및 소련 (9개국)

Albania, Bulgaria, Czechoslovakia, East Germany, Hungary, Poland, Rumania, U.S.S.R, Yugoslavia

2) Richard F. Staar. "Checklist of Communist Parties in 1983." Problems of Communism, march-april, 1984, PP. 43~46.

세계는, 전통적인 공산주의체제의 경우에도 많은 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로 Charlmers Johnson은 스탈린사후 소련 정치체제에 나타난 중요한 정치적 변화로 당통제의 합리화, 정치적 테러의 쇠퇴, 집단활동의 증가, 당엘리트의 관료화등을 지적하고 있다.<sup>3)</sup>

이러한 공산권 자체의 다양성과 변화는 이미 1960년 후반부터 미국의 학계가 중심이 되어 소위 「傳統的인 地域 研究의 接近」(traditional area-studies approach)에서 벗어나 「後期地域 研究」(post-area studies) 혹은 「比較 共產主義의 研究」라는 이름의 새로운 경향을 공산주의체제의 분석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60년대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책은 Donald W. Treadgold, ed., Soviet and China Commun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Univ of Washington Press, 1967와 Char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 Press, 196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비교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그 방면에 연구업적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sup>4)</sup>

이러한 결과를 다음 네가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첫째 중소분쟁, 둘째 동구에서 일어난 경제개혁운동과 자유화 추세, 세계 공산권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결과, 셋째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의 등장이다.<sup>5)</sup>

## II. 공산주의체제 비교연구의 제 접근법

接近法( approach, analytic model)은 어떤 정치현상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가 세워놓은 일반적 전략( general strategy )과 같은 것이다. 대개 접근법은 일련의 기본적인 가설과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조직화된 개념들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이것에 의존하여 자료를 선택하기도 하고 연구를 이끌어 나간다.

3)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 Stanford Univ Press, 1970 ) PP. 1~10.

4) 정종욱, "미국에서의 공산권 연구," 한국 공산권 연구 협의회편, 「공산권 연구현황」 법문사, 1981. P. 183.

5) Ibid

다음에 소개하는 접근법은 역사적·문화적 접근법과 같이 비교적 고전적 접근법에서부터 새로이 대두되는 여러 유형의 접근법들이다.

일반적으로 단일연구에 있어서는 적어도 둘 이상의 다양한 접근법의 중복·조합되나, 방법론상의 논의를 위하여 개개의 접근법을 분석하였다.

### 1. 역사적·문화적 접근법

이 접근법의 주창자들은 공산주의체제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정권 수립 이전의 그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유산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역사적인 유산을 형성하는 전통과 공통경험의 특성은 그 정치체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이전의 정치제도, 과정, 이념 등이 공산주의체제의 형성, 유지,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접근법에 의한 대표적 연구가 Adam B. Ulam, "The Russian Political System," in Samuel H. Beer et al, Patterns of Government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1973), Hugh Seton-Wats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3rd ed; New York: Praeger, 1956), Lucian W. Pye, China: An Introduction (Boston: Little, Brown, 1972) 등이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그 사회의 역사적 유형 (historical patterns) 을 찾아내어 그것이 현 정치과정과 체제의 미래의 가능한 발전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며 인과적 연구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약점은 이 접근법은 전통과 공산주의체제와의 연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되어 큰 변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그 체제의 독특성을 강조하여 다른 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분석을 곤란하게 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sup>7)</sup> (각 공산주의 체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념적 유사성, 구조적 특징, 또 이들이 추구하는 장기적 목표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6) 최명, "중국정치," 김영국편, 「현대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법문사, 1981. P. 226.

7)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1974), P. XXIV.

## 2. 전체주의적 접근법

공산주의체제에 접근하는 접근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전체주의적 접근법이라 하겠다. 이 접근법은 나찌독일과 스탈린 소련체제에 대한 Carl J. Friedrich와 Zbigniew F. Brzezinski의 분석으로부터 제시되어 왔다. 이들은 전체주의적 체제의 특징으로 (1) 官製 이데올로기 (2) 獨裁者 一人에 의해 영도되는 單一大衆政黨 (3) 폭력적 警察統制體系 (4) 매스컴에 대한 獨點 (5) 軍部에 대한 獨點 (6) 中央統制經濟 (7) 法과 法院에 대한 行政的 統制 (8) 膨脹主義 등을 들고 있다.<sup>8)</sup>

이러한 내용의 접근법으로 소련과 중공등 공산체제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보편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비판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그 概念의 模糊性 둘째 「역사적으로 제약된 접근법」 셋째 「價値負荷의」 넷째 比較分析 틀로서의 적은 活用性등이다.<sup>9)</sup>

그럼에도 이 접근법은 공산주의체제의 초기단계를 설명하는 데나 또는 동원단계에 있는 공산체제를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의미 있다고 볼수 있다.

## 3. 정치문화적 접근법

정치문화적 접근법은 역사적·문화적 접근법의 變型으로 그 기본적인 假定은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와 평가의 樣態가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한 문화의 구성요소이며,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태도와 평가의 본질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오늘날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에 미친 역사적 요소와 전통의 영향을 중시하고 文化樣態의 社會的 혹은 心理的인 基礎를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상기한 역사적·문화적 접근법과 전체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Jowitt에 의하면 정치문화는 정치구조와 상호적이기에 공식적, 구조적 요인과 비공식적, 문화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면에서 공산체제

8)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F.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9) 최명 교수는 공산국가의 정치체제를 설명하는데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제기한 여러 학자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공산체제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전체주의라는 개념을 이미 널리 합의된 개념으로 전제하고 엄격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개념은 상당한 혼란을 수반하고 있다.

둘째,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이미 전체주의가 비민주적인 것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선악의 가치판단이나 대결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부하적」 (價値負荷的)이라는 것이다.

최명, op. cit. PP. 198 ~ 199.

들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문화적 접근법은 독특성의 결핍을 피하고 구조적 요인만이 공산체제의 성격을 결정해준다는 주장을 피할 수 있다.<sup>10)</sup>

대표적 연구는 Frederick C. Barghoon, Politics in U.S.S.R (2nd ed.; Boston: Little, Brown, 1972), Richard H. Solomon,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폐쇄적인 공산체제의 경우 인민들의 정치문화를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용이치 않고 설사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자료라 하더라도 그 자료의 신빙성과 타당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4. 복잡한 조직 접근법 (관료제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공산체제내에서도 여타 근대적인 정치체제와 마찬가지로 공산체제를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으로 보고 관료주의적 조직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결정과 수행에 있어 당기구와 각종 국가 행정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통해 공산체제의 정치과정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공산체제에서 당과 국가라는 거대한 기구에 의한 통제와 명령등 강압적인 측면에 가장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비교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산체제 상호간의 상이성 보다는 유사성 내지는 동질성을 강조하게 된다.

대표적 연구는 Franz Schurma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6), A.D. Barnett, Cadres Bureaucracy and Political Power in Communist China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7) 등이다.

이 접근법에 가해지는 비판은 convergence theory에 대한 그것이다.<sup>11)</sup>

10) Kenneth Jowitt, "An Organizational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in Marxist-Leninist Systems," APSR, Vol. 68, No.3 (September, 1974) P. 1173

11)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13. 「수렴이론」은 동서세계가 이데올로기의 차이때문에 이산화되면서도 공업화가 촉진됨에 따라 점차 양대사회는 이데올로기 보다는 공업화가 마련해 주는 현대 산업사회의 목표들 향해 유사한 방향으로 상호 수렴하고 있으며 이같은 허부구조가 유사성을 보이면 궁극적으로는 상부구조로서의 정치형태도 유사하게 수렴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첫째로 소련이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둘째, 수렴이론은 일종의 경제결정주의라는 것이며, 세째는,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두지 않는 염원의 표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체제의 경우 조직의 중요성 못지않게 지도자의 지도력 (카리스마인 경우 더욱 그렇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도 많다. (예: 모택동 집권시의 중공, 김일성체제의 북한)

### 5. 근대화 혹은 발전론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공산주의가 후진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수단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그것은 소련의 공업화 모델의 영향을 받은 동구 혹은 아시아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공업화의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탈린적 모델을 채택한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공산체제가 동일한 근대화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과 체코, 중공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발전유형을 보다보면 과연 근대화를 위한 독특한 공산주의적 접근법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된다. 그리고 이 접근법도 역시 convergence theory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산체제의 발전과 변동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려는 필요성에서 A. Etzioni 나 D. Apter의 방식을 취하여 「動員體制」(mobilization system)<sup>12)</sup> 또는 「運動政權」(movement regimes)<sup>13)</sup>이라는 개념을 R. Tucker와 같은 일부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다.

### 6. 집단갈등론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정치과정은 경쟁적 영향력을 가진 여러 집단 사이에 혹은 이런 집단의 각각의 이익과 추구하는 목표간의 투쟁과 경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西歐의 多元主義的인 정치체제를 분석하는데 아주 인기가 있었던 集團理論을 빌어 설명해 보려는데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Gordon

---

Bertrical D. Wolfe, "The Convergence Theory in Aistorical Perspective," An Ideology in Power (New York: Stein and Day, 1969), PP. 376 ~ 394; Zbigniew F. Brzezinski and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Power: USA/ USSR (New York: Viking Press, 1964)

12)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P. 357 ~ 390

13) Robert C. Tucker, "Toward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 Regimes," A P S R Vol. 55, No. 2 (June, 1961) PP. 291 ~ 289.

H. Skilling 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소련에 있어 共産黨內의 勢力葛藤을 강조한 Carl Linden 의 연구,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pressures) - 여기에는 농민, 지식인, 소수민족들이 포함된다. - 과 제도적 要素들 (institutional elements) - 여기에는 당과 정부의 다양한 기관들, 군대, 경찰, 관리자들이 포함된다. - 에 대한 Robert Conquest 의 연구 등을 일별하면서 集團葛藤 접근법의 개발을 옹호한 것이다.<sup>14)</sup>

그는 공산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利害관계를 표출시킬 수 있는 상대적 능력에 따라서 다섯 範疇의 정치집단의 존재한다고 보았다. 첫째가 「리더쉽 그룹 또는 派閥」(leadership groups or faction)이며 둘째가 「官僚 그룹」(official or bureaucratic group)이며 셋째가 「지식인 그룹」네째가 「광범한 사회 그룹」(broad social group) 다섯째가 이 네 범주의 각각 안에 있는 「意見그룹」(opinion group)이다. 그는 이 다섯 범주의 집단간의 갈등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즉 집단역할 또는 이익갈등의 정도에 따라 공산체제를 다음과 같이 다섯개로 유형화 했다.<sup>15)</sup>

(표 1) 이익갈등의 정도에 의한 공산정치체제 유형

특징과 사례 유형	특 징	사 례
유사 전체주의체제 (quasi-totalitarianism)	자유로운 집단활동은 부인된다. 비록 집단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리더쉽이 도구화된 형식 집단.	스탈린 치하의 소련, 1945 - 48년의 유고, 1948년 이후 헝가리와 폴란드
협의적 권위주의 체제 (consultative authoritarianism)	자발적인 집단활동이 광범하게 나타난다. 이익집합이 어느정도 허용되지만 당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유지	흐루시초프 이후의 소련, 1960년대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1968년 이후의 폴란드

14)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in Fleron(ed)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Chicago: Rand McNally and Co., 1969) PP. 281 ~ 297.

15) H. Gordon Skilling, "Group Conflict and Political Change," in Johnson, op. cit., PP. 222 ~ 229.



특징과 사례 유형	특 징	사 례
유사 다원적 권위주의체제 (quasi-pluralistic authoritarianism)	집단갈등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한 집단 영향이 늘어난다. 당우위는 유지되며 특히 관료 집단이 유력한 세력으로 부각 된다.	흐루시초프 치하의 소련, 1963 - 56년의 폴란드 와 헝가리
민주화하고 있는 다원적 권위주의체제 (democratizing and pluralistic authoritarianism)	권위주의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정치과정이 상당한 정 도로 민주화 되고 리더십이 제 도화가 이룩되고 있다.	1966년 이후의 유고슬 라비아, 1968년 초반의 체코슬로바키아
무정부적 권위주의체제 (anarchic authoritarianism)	당의 주도적 입장이 붕괴되고, 국가행정체제가 약화되어 집단 (특히 군부, 학생, 청년층) 갈등이 고조되며 일시적인 사 회혼란을 초래한다.	문화 혁명기간의 중공

이에 대한 비판은 첫째 원래 서구의 정치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접근법이 공산체제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sup>16)</sup>

둘째는 공산체제의 정치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력 행사를 하는 형태분석의 커다란 장애는 특히 공산국가에 있어서는 실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아주 폐쇄적이며 또 이에 관한 자료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공산체제내에 집단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원화 추세가

16) Robert J. Osborn은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은 자주적으로 발생하며 정치 지도자에 의해 반대될 수 있는 주장이나 명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공식적 조직인데, 공산국가의 정치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이익집단은 찾아볼 수 없으며, 공산정치체제는 이러한 집단의 발생을 저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Robert J. Osborn, The Evolution of Soviet Politics (Homewood, III: The Porsey Press, 1974) PP. 485 ~ 487.

접근할 장래의 공산체제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분석도구를 제공해 주리라 본다.

### 7. 공산주의체제론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공산주의체제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을 비교의 기준자로 삼고 공산국가의 성격이 극도로 다양화된 오늘의 세계에서 여러 공산주의 체제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자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공산주의체제가 가지는 중요한 특성 요소로 (1)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 (2) 생산활동의 주요수단이 정부내지는 공공의 소유이며 (3) 전위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이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4) 다른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정책에 있어 연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이 접근법은 다양화된 현대 공산주의체제들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산주의체제의 모형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하겠다.

## Ⅲ. 북한체제에의 적용 가능성

### 1. 역사적·문화적 접근법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공산권연구의 시각에 취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적 차원에서 과거와 현재를 묶어서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차원에서의 취약점은 북한연구에 있어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역사적·문화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일찌기 황성모 교수는 “북한학 연구방법의 역사론적 시각”에서 원래적인 의미에서 30년이라는 시공적 단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변동현상으로서 사회학적 연구분석의 대상이 될수 있엇도 거기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역사론을 구성해 내기에는 너무나도 현재성이 현현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입장에 의한 왜곡을 면할 수 없기에 30년이라는 시공적 단위를 그 이전의 사회변동, 다시말해

17) Stephen White, "What is a Communist Syste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16, No. 4 (1983, Winter) PP. 247 ~ 263.

서 30년 이전의 사회구조와 연결시킴으로써 사회변동과정을 역사화 시키는 일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sup>18)</sup>

이흥구 교수는 북한의 실태를 연구하는데 있어 지난 100년을 단위로 해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오늘의 북한 또는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 연구는 19세기에 있었던 衛正斥邪, 東學, 開化등의 정치적 및 사회적 조직에서 부터 설명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다.<sup>19)</sup>

이상우 교수 역시 북한 공산주의가 가지는 전체주의적 권력체제의 성격 규명은 이조사회의 정치문화적 유산과의 관계하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0)</sup>

지금까지 역사적·문화적 접근법에 의한 북한연구로서 대표적인 것은 서대숙(徐大肅) 교수의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 - 1948, 김준엽(金俊燁) 교수와 김창순(金昌順) 교수의 「韓國共產主義運動」(I-VII), 양호민(梁好民) 교수의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I·II)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연구에 있어 역사적·문화적 접근법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북한체제의 여러 특징을 지나치게 이전사회에서 찾아 경직화된 역사관이나 직관의 노예가 되는 점 일 것이다.<sup>21)</sup>

## 2. 전체주의적 접근법

전후 공산권이 다원화 현상을 거치면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보완하려는 이론모형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오늘의 북한은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체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Friedrich와 Brzezinski가 정의한 전체주의적 특징 - 관제 이데올로기, 단일대중정당, 폭력의 경찰,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통제의 독점, 군대에 대한 통제의 독점, 통제경제 등은 오늘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쉽사리 응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처럼 철저하게 唯一(思想·政黨·指導者·後繼者)을 최고의 규범으로 내세웠던 전체주의 사

18) 황성모, "북한학 연구방법의 역사론적 시각," 「북한」 1975, 8

19) 이흥구, "공산권 연구의 시각과 문제점," 한국 공산권 연구협의회회편, 「공산권 연구 현황」 법문사, 1981, pp. 17 ~ 18.

20) 이상우, "북한 공산주의의 본질과 문제점," 평화통일 연구소, 제 4차 한중학술회의 주제 논문, 1983

21)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 3권 제 1호, 1977, P. 153

회에 대한 기록은 역사상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생각할 수 있다면 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과 같은 작품에서나 존재하였을 뿐이다. 스탈린치하의 소련이나 문화혁명때의 중공도 북한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북한체제를 해명하는데 유용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이 접근법에 의한 대표적 연구는 이상우(李相禹)교수의 “북한공산주의의 본질과 문제점”(평화연구소, 1983)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도전은 북한의 정치과정에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는 김일성이라는 정치적 퍼어스낼리티의 비중을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과 최근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적 변화와 같은 변동 과정을 경시하게 되어 북한사회의 장기적 전망이 어렵다는 점이다.<sup>22)</sup> 북한체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 접근법을 원용하면서도 북한체제의 변동요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의 논문은 안병영(安秉永)교수의 “북한사회의 변동전망에 관한 연구”(국토통일원, 1974. 6)라고 볼 수 있다.

### 3. 정치문화적 접근법

정치적 권위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유형이 모든 사회의 보다 광범한 틀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북한체제의 경향분석에 있어서 정치문화적 접근법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북한의 정치문화에 있어 주요한 구성요소는 主體思想이라는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김일성 스스로가 「북한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자랑하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까지에서 모든 가치판단의 준칙이 되어 있다. 이 접근법에 의한 연구는 지금은 일단 북한에서 귀국한 사람들을(월남자포함) 대상으로 시도할 수 밖에 없어 연구결과에 대한 신빙성과 타당성에 다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하겠다.

### 4. 복잡한 조직 접근법 (관료제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체제관리기(system management)에 접어든 공산주의체제에

22) Ibid. P. 154

23) 이용필, “북한정치 연구방법 시설.” 이용필(편저), 「북한정치론: 이데올로기와 변화」 대왕사, 1982. P. 29.

서 볼 수 있는 이른바 관료화현상(bureaucratization)에 근거한 시각이다. 공산주의체제도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산업사회의 복합조직의 본질적 생리에 따라 움직여 나갈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다.<sup>24)</sup> 북한체제도 산업화 과정을 밟으면서 관료화현상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복합조직 접근법에 의한 연구의 좋은 기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체제처럼 동원정권의 성격이 강하고 조직의 역할보다는 카리스마인 김일성의 지도력이 중요한 북한의 경우 이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 5. 근대화 혹은 발전론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공산화된 국가의 근대화과정을 스탈린적 모델로 유형화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은 과히 크지 않으나 북한의 경우 스탈린체제의 길을 밟아왔기에 지금까지의 과정은 해명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화는 전망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초기의 스탈린 모델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사회주의로의 다양화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보여주는 중공식 경제개방의 시도는 이 접근법이 갖는 그 한계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 6. 집단갈등론적 접근법

이 접근법은 선진 공산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화, 제도적, 기능적 부문 내지는 집단간의 이익의 상충이 제도화(institutionalized)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속에서 간단없이 표출된다는 관점이다. 북한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단위 경제지도위원회의 신설에서 보여주듯이 경제에서의 중앙집권제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있으나 아직 사회내 하위체계의 자율성이 전혀 용인되지 못하고 있고, 당의 외곽단체들이 주요 조직인데 이 조직 사이의 집단적 이익상충과 조정의 양상이 아직 눈에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보다 실무적이고, 보다 젊은 세대에 의해서 북한체제가 지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료체제 내부에서나마 이들 기능 집단간의 이해상충이 중요한 정책결정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sup>25)</sup> 그러나 김일성 - 김정일체

24) 안병영, op. cit. P.155

25) 정치국원의 세대교체, 김정일은 물론이고 당중앙위원 248명 중 139명이 신진인물로 바뀌었다.

제가 보여주는 정치적 인격화 현상 때문에 당분간 이른바 제도적 다원주의적 발아(發芽)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접근법의 적용은 아직 이른감이 있다.

### 7. 공산주의체제론적 접근법

북한체제가 보여주는 독특성 때문에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며,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주의도 아니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sup>26)</sup> 이러한 주장에는 대부분의 서구 및 동구공산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소련사람까지도 동조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우리는 이 접근법을 통해서 북한체제가 다른 공산주의체제와 어떻게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가를 시간적 및 공간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성격규명에 보탬이 될 것이다. 즉 시간적 차원에서는 북한체제가 과연 어떤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면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명시하는 것이고, 공간적 차원에서는 현존하는 여러 공산주의체제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체제적으로 정리하여 보는 것이다.

## IV. 맺 는 말

현대 공산주의의 제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은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나 정책 과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더군다나 민족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경우 북한공산주의체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이해를 높여야 하는 문제는 어찌하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산주의의 문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길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의 축적에서 찾아야 하고 이는 곧 이론화의 과제이기도 하다. 설명력과 예측력은 이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뜻에서 북한공산주의체제 연구에 있어 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론과 연결된 접근법의 정비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접근법은 각기 유용성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들은 다양한 현대공산주의의 본질규명에 기여한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체제가 보여주는 변화의 폭과 넓이에 비추어 이러한 접근법들은 어느 한 측

26) 이상우, op. cit. P. 26

27) 이흥구, "북한연구의 학문적 과제," 한국 공산권 연구협의회회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법문사, 1982. P. 12

면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현대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에 따라 위의 여러 접근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무릇 모든 공산주의체제가 공산체제가 공유하는 일반론적 속성 못지 않게 그 체제가 뿌리박고 있는 전통성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역사성, 전통성에 초점을 두어온 종래의 지역연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겠다.

북한연구에 여러 접근법의 적용문제를 검토하면서 아직까지는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비교적 설득력있는 것이기는 하나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한계가 뚜렷하다. 결국 북한연구는 김학준 교수의 지적대로 북한체제는 공산주의적 요소보다도 북한적요소가 강하게 있으며, 때문에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연구의 접근법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어느 공산주의체제보다도 폐쇄적이기에 자료의 제약이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그렇다고 위의 접근법이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 위의 여러 접근법을 토대로 활발한 연구가 있어 북한에 대한 지식의 축적 그리고 그에 따른 체계화가 시급하다 하겠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체제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법과 이론의 개발에 보다 창의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다.